

70년 전 그날을 기억하다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는 정부 행사가 6월 25일 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공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6·25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가기 위한 취지로 시종 경건하면서도 성대히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 앞서 전날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공군의 군항기를 타고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조국의 품에 돌아오기도 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열린 다양한 행사를 집중 조명했다.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정부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의 메달'을 차수정 6·25 참전유공자회 부회장에게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6·25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가기 위한 6·25전쟁 70주년 행사가 6월 25일 밤 서울공항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주宾으로 한 이번 행사는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경의를 담아 '영웅에게, Salute to the Heroes(영웅들께 경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6·25 참전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모든 참석자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12만2609명의 전사자를 끝까지 찾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담은 '122609 태극기' 배지를 달아 호국영웅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배우 최수종과 국방홍보원 정동미 대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날 미국 하와이에서 공군 최신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를 타고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맞이하며 시작됐다. 특히 신원이 확인된 고(故) 오대영 이등중사와 하진호·김정용·김동성·최재익·박진실·정재술 일병 등 7구의 유해, 미국으로 송환되는 미군 유해 6구가 윤도현이 부르는 '늙은 군인의 노래'에 맞춰 입장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정부 주요 인사들은 이들을 위한 헌화·분향을 마친 뒤 각각 참

전기장을 수여했다. 이어 유해의 귀환 여정과 신원이 확인된 유가족들의 인터뷰 영상이 상영됐다. 배우 유승호는 장진호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낭독하며 치열하게 싸웠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켰다.

특히 70주년을 맞아 혈맹의 우정을 맺어 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22개 유엔 참전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보내온 우정과 평화의 메시지도 상영했다.

이 밖에도 전쟁 당시 공적을 70년 만에 확인해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매봉고지 전투에서 적의 거점을 파괴하는 등 고지점령에 기여했던 공호영 하사와 임진강 전투에서 활약한 고(故) 김명순 이등중사의 아내 유재선 씨, 보광리 지역 수색·경계 등 유격전을 펼친 고 오봉택 이등상사의 아들 오덕록 씨가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14명(생존 참전용사 2명, 유족 12명)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각 군 대표와 참전용사가 함께하는 현정 군가와 '6·25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국군 유해 147구와 미군 유해 6구를 봉송 차량으로 운구했다. [more]

이주형·맹수열 기자

전쟁 70년 만에… 호국영웅 돌아오다

북에서 발굴된 국군 유해, 미국 거쳐 조국 품으로



공군 장병들이 미군 측으로부터 인수한 국군 유해가 KC-330 공중급유기 좌석에 옮겨져 고국으로의 귀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양동욱 기자



항공기 좌석에 옮겨진 국군 유해 모습. 양동욱 기자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소속 미군 장병들이 국군 유해를 태극기로 감싸고 있다. 양동욱 기자



박재민(앞줄 가운데) 국방부 차관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행사에서 유해가 안치된 항공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잊혀졌던 전쟁 영웅들이 6·25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6월 24일 먼 길을 돌아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는 6월 24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봉환유해인수단이 6월 21일 공군 최신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를 타고 출국, 미국 하와이에 있는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으로부터 국군 전사자 147구의 유해를 인계받아 귀환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봉환된 유해들은 북한 개천시, 운산군, 장진호 일대에서 1990~1994년 발굴된 유해 208개 상자와 1차 북미정상회담 뒤 2018년 미국으로 송환된 유해 55개 상

자 중 일부다. 유해들은 이후 DPAA로 이송, 보관되다가 한·미 공동감식 결과 국군 전사자로 판정되면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했다. 국방부는 발굴지역에서 싸운 미7사단, 국군2·25사단의 전사기록과 전사자 명부를 점검해 신원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수식에는 박 차관과 허우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신상범(육군준장) 국방부 6·25전쟁 70주년사업단장, 유엔사령부 참모장과 김준구 주호놀룰루 총영사가 참석 했다.

미국에서는 필립 데이비슨(해군대장) 인도태평양사령

관과 DPAA 관계자가 자리했다. 이 밖에도 현지 참전용사 등 100여 명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영웅들을 환송했다.

행사는 박 차관과 데이비슨 사령관의 추념사를 시작으로 인계·인수 서명식, 유해인계 순서로 진행됐다. 유해인계는 성조기로 싸여 있던 유해 1구를 유엔기로 관포(棺包)했다가 박 차관이 다시 태극기로 교체해 짠 뒤 허 단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마무리됐다.

봉환되는 유해와 인수단은 24일 오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시그너스 공중급유기를 엄호한 F-5, F-15K, FA-50 전투기들은 6·25 당시 참전했던 부대의 후예들인 101·102·103 전투비행대 소속이다. 특히 F-15K를 조종한 강병준 대위는 참전 조종사인 고(故) 강호륜 예비역 준장의 손자라 의미를 더했다.

박 차관은 “6·25 발발 70년이 된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유해 송환은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숭고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 맹수열 기자

“백두산함 영웅들은 살아있는 역사”

대한해협해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6월 26일 대한해협해전 참전용사들과 유가족들이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전병익함으로부터 대합경례를 받고 있다. 이날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함정들은 만함식으로 함정 전체에 깃발을 내걸고 마스트에는 ‘REMEMBER’ 기류를 게양했다.
해군 제공

70년 전 6·25전쟁 당시 해군의 첫 승전으로 기록된 대한해협해전의 영웅들을 위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해군은 6월 25·26일 양일간 해군작전사령부와 부산 일대에서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대한해협해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기념행사에는 당시 백두산함 갑판사관이었던 최영섭(93) 예비역 대령을 비롯한 전쟁영웅 5명과 유가족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한해협해전은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이 6·25 발발 당일인 1950년 6월 25일 오후 8시 12분경 무장병력을 태우고 부산 해역으로 침투하던 북한의 무장수송선을 침몰시켜 승리한 해군의 단독 작전이다. 이후 해군은 당시 해전 중 전사한 고(故) 전병의 중사와 고(故) 김창학 하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해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 14번함과 18번함을 각각 김창학함, 전병익함으로 명명했다.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호국음악회를 시작으로 전승기념비 참배, 시가행진, 환영 오찬, 전승기념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시티투어 버스에 올라 부산역에서 작전사까지 13km 구간을 이동하며 시민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이어 작전사 영내로 진입하자 해군은 함정들의 정박사열로 맞이하며 예우를 표했고, 함정

들은 만함식으로 함정 전체에 깃발을 내걸고 마스트에는 ‘REMEMBER’ 기류를 게양해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장병들은 함정 현측에도 열해 거수경례로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다.

또한 전승기념식에서는 최고 예우를 뜻하는 예포 21발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경례에 이어 백두산함 승조원과 유가족 소개, 최 예비역 대령의 회고사, 참모총장 기념사,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축사가 이어졌다. 참전용사들에게 감사 메달이 전달됐고 열병 후에는 해군 의장대의 의장시범과 블랙아이글스의 축하 비행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백두산함 참전용사님들은 살아있는 승전의 역사이자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며 “나라의 위기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백두산함 승조원들의 고귀한 희생과 필승의 마음가짐을 되새겨 ‘필승해군, 선진해군’을 건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예비역 대령은 “해군 장병과 가족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갖게 된 백두산함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며 “우리 노병들의 소망은 오직 ‘후대들의 행복한 삶’이다. 해군 여러분이 조국 해양수호의 임무를 완수해 달라”고 말했다. 군

노성수 기자

‘전쟁의 기억’ 넘어 ‘평화의 내일’로

전쟁기념관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전 개막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6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특별기획전 ‘사람을 만나다’ 개막식을 마치고 이상철 전쟁기념사업회장(맨 앞)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6·25전쟁 참전 세대들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막을 올렸다.

전쟁기념관은 6월 25일 6·25 7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기획전 ‘사람을 만나다’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전시는 6·25 참전 세대를 대표하는 38가지 이야기를 통해 전쟁을 기억하고 이를 뛰어넘어 ‘평화의 내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4구역으로 나뉜 전시는 38개의 이야기를 일대일로 대면하는 ‘사람, 서른여덟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숫자, 그 너머의 사람’ ‘이야기, 70년을 잇다’ ‘새로운 시작, 평화’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쟁 당사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사람’을 다양한 매개체로 만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끈다.

관람객들은 전쟁을 겪으며 ‘사람’이 마주한 다양한 감정을 공감하며 오늘의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날의 우리’를 만날 수 있다. 특히 15분마다 대형 벽면을 통해 상영되는 ‘실감영상’을 통해 감정 이입도 경험할 수 있다.

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쟁기념관이 임시 휴관한 상태에서 열리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관람객과 소통할 방

침이다. 전쟁기념관은 전시실에서 상영되는 23개의 개별 인물 이야기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전시 공정 타임랩스 등 특별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도 특별기획전과 발맞춰 ‘꼬불꼬불 기지 대탐험’ 기획전을 온라인으로 개막했다.

26일 오전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콜롬비아 참전용사를 격려하기 위한 온라인 화상 대담이 열렸다. 대담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로세로 주한콜롬비아대사, 이상철 전쟁기념관장 등이 참여했다. 콜롬비아 현지에서는 카를로스 홀메스 트루히요 콜롬비아 국방장관과 참전용사·유가족 등이 자리했다. 전쟁기념관은 이번 행사와 함께 콜롬비아 참전용사 힐베르트 디아스 벨라스코(87)翁이 전쟁 당시 직접 찍은 사진 152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전쟁기념관은 “이번 특별기획전을 통해 ‘전쟁의 기억’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의 여정’에 국민의 마음이 모아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

맹수열 기자



6·25전쟁 70주년인 6월 25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6월 26일 해군 부산작전기지에서 열린 제 70주년 대한해협해전 전승 기념식에서 공군 블랙이글스가 축하비행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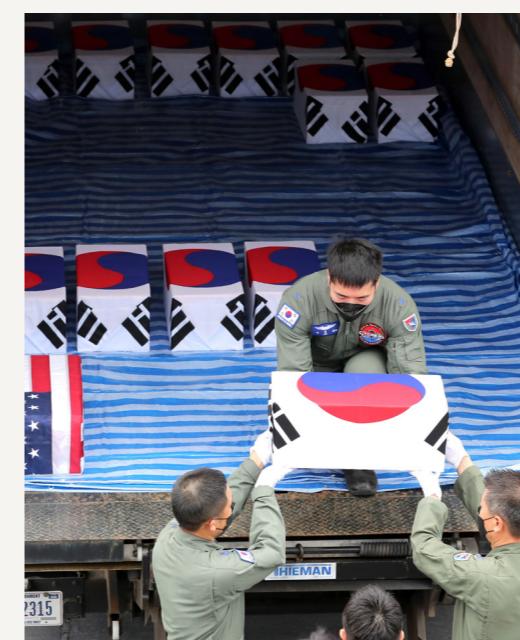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강정덕 상사와 이창선 상사가 6월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히кам공군기지에서 열린 미 DPAA 보관 국군 전사자 봉환 행사에서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유해를 공군 KC-330 공중급유기로 옮기고 있다. 양동욱 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강정덕 상사가 미 DPAA로부터 전달받은 국군 유해를 태극기로 싼 뒤 '호국용사의 為英靈'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있다. 양동욱 기자



공군 장병들이 6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кам공군기지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인수한 한국군 유해를 KC-330 공중급유기로 옮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25일(현지시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DC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방문해 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